

【논 문】

재만주(국) 작가 안수길과 ‘얼되놈’의 자리
- 이념적 폭력의 공간에서의 글쓰기와 작가의 윤리 -

정 주 아*

┃ 차 례 ┃

1. 서론-사실과 판단
2. ‘얼되놈의 자리’와 작가의 윤리
3. 자기응시와 자기보존의 긴장 관계
4. 결론-이념적 폭력의 공간과 글쓰기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만주국의 재만조선인 작가였던 안수길의 작가윤리를 ‘얼되놈’과 ‘얼되놈의 자리’라는 키워드를 통해 논의하였다. ‘얼되놈’은 해방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여 안수길의 소설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갈등 요인으로, 중국인의 위세를 업고 조선인 위에 군림하려 수탈한 조선인을 가리킨다. 재만조선인 집단에서 보자면 이들 ‘얼되놈’은 이주민 내부의 치부(恥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안수길의 소설에 나타난 내부 응시자로서의 시선이 갖는 가치를 논하였다. 나아가 안수길이 해방 이후 『북간도』를 집필하면서 단순히 ‘얼되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얼되놈’의 발생사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만주국에서 이민족과 타협하고 때론 그들에게 굴종하며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던 재만조선인 일반의 딜레마를 형상화한 것이라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의 확장을 ‘얼되놈’이라는 존재보다 ‘얼되놈의 자리’라는 관계 양태로 작가적 관심이 옮겨간 것이라 해석했다. 이권 다툼 및 권력 문제가 개입된 이민족 간의 대면 상황에서 ‘얼되놈의 자리’란 생존 및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미리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마련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실상 ‘얼되놈의 자리’는 만주국 치하 『만선일보』에서 일했던 ‘얼왜놈’으로서의 안수길이 놓였던 자리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에 문제는 ‘얼되놈의 자리’에 놓인 개인의 자기반성 및 윤리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해방 전후 안수길의 소설이 세속적인 타락과 주류에의 맹목적 추종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자기응시를 통한 반성 작용 속에서 작가로서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이로써 재만조선인 작가안수길의 글쓰기 행위가 갖는 의의를 해명하였다.

주제어 : 안수길, 재만조선인 문학, 만주국, 만주, 간도, 『복원』, 『북간도』, 얼되놈, 얼되놈의 자리

1. 서론 - 사실과 판단

안수길은 재만조선인 문학의 큰 산이다. 이때 큰 산이라 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가 해방 이전에 발표된 창작집 『복원』(1944) 및 장편소설 『북향보』(1944-45), 해방 이후 발표된 『북간도』(1959-67)로 이어지는, 재만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란 뜻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 이전 『만선일보』의 기자로 일했던 안수길의 전력과 그에 따른 작품의 해석이라든가 문학 활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한국문학사에서 그 자체로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복원』의 「후기」에서 안수길은, 소설들이 제각기 발표되긴 했지만 ‘시대적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자선 대표작들을 순서대로 열거한다.¹⁾ 그러나 그의 추천대로 「새벽」(1935), 「새마을」(1942), 「벼」(1941), 「원각춘」(1941), 「토성」(1942), 「목축기」(1943) 등을 읽어 나가는 것은 분명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이들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1880년 전후 두만강 대안의 북간

1) 안수길, 「後記」, 『복원』, 예문당, 1944.

(이하 이 글의 인용되는 안수길 단편의 인용 면수는 1944년 예문당 판본 『복원』의 표기 방식과 페이지수를 따르고, 본문에는 『복원』이라고만 명기한다. 대하소설 『북간도』는 1967년 삼중당 판본의 표기방식과 면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도 지역 주민의 ‘월경(越境)’문제가 정치적인 관심사가 된 이래,²⁾ 만주국 성립 이전 이미 간도 땅을 개간하여 뿌리를 내린 조선 농민들의 사연을 다룬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텃세, 중국인 토호가 고용한 조선인 관리인의 농간, 마적의 침입 등을 겪으면서도 땅을 개간하고 수로를 만들어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인들의 수난사와 생존 의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적(史的) 기록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복원』에는 이 창작집이 발표된 시공간의 영향을 실감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곳곳에 등장한다. 예컨대 소설 「벼」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찬수는 물에 머리를 박은채 다시한번 흙속의 팔에 원힘을주어 흙과벼모를 안었다. 균중은 엎드린채 육군은 총뿌리를겨누채 안무런동요도없이 무시무시한 침묵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중략...) 나까모도한테 갔든 사람들은 그때까지 오지않았다. 그러나 곳 오고야말것이다.³⁾

조선인 개척민을 내몰기 위해 육군까지 동원하는 중국 현성(縣省)의 폭력성을 부각시킨 이 소설의 결말은, 북벌에 성공한 장개석 정부에서 파견된 민족주의자인 중국 현장(縣長)에 의해 생겨난 사태이므로 적어도 1928년을 전후한 사실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개척민을 위협하는 배타적 집단으로 중국 정부를 그려내고, 중국 정부와 개척민의 대립을 해소하고 중재할 인물로 일본인을 내세운다. 주지하듯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일본 군부가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까지 만주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물이 1932년에 설립된 만주국이며, 이른바 만주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그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조선인

2) ‘간도’라는 명칭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박선영, 「간도 문제의 시대적 변화상, 17~21세기」, 『만주, 동아시아융합의 공간』, 한석정·노기식 편, 소명출판, 2008, 304~305면 참고. 이 시기에는 ‘조청 국경 답판 시기’로 두만강 건너의 간도 지역의 소유권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실제로 이 시기는 안수길 『복간도』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

3) 안수길, 「벼」, 『복원』, 291면.

부락을 구원할 존재로 일본을 상징하고 나아가 오족협화를 선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토성」에 이르면 만주사변으로 비적에 의해 근거지를 잃은 가족이, 만주국이 건국과 더불어 내놓은 농촌 갱생안인 ‘자작농창정’ 정책에 의해 다시 재기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쯤 되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안수길이 이들 소설에서 ‘시대적 연결’을 느낄 것이라고 장담할 때,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법천지의 만주가 국가로 상징되는 법제적인 질서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만주국의 언론 검열 때문에 의식적으로 써놓은 정치적 발언을 무시하고 서사의 줄기를 이루는 재만조선인의 고난의 역사를 보라는 것인가. “만주문예단에 보내는 개인창작집으로서 선편”⁴⁾, “만주선계 문단에서 개인 창작집으로는 이것이 효시”라는⁵⁾ 격려와 함께 야심차게 발간된 안수길의 창작집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상 재만조선인 문학뿐만 아니라 대일협력 문학의 평가 문제라는, 식민지 시대가 숙명처럼 남겨 놓은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과제의 연장선상에 서게 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안수길이 만주를 개척한 조선인의 서사를 쓰고 싶어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 안수길이 회상기를 쓰며 무심코 내뱉은 “나의 용정”이란 말의 어감에서 짐작하듯⁶⁾ 그의 젊은 시절은 물론 그의 삶 전체가 ‘간도’라는 시공간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럼에도 이러한 문학적 실천행위의 대부분이 만주국과 그 국책 선전지라 할 『만선일보』의 기자 생활, 만주국 산하 보도국의 통제를 받는 문단 활동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들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사실들은 중국 땅에서 일본의 정치 체제에 복종하며 조선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만주국이라는 왜곡된 공간 속에서 서로 엮혀서, 표면적 정황

4) 염상섭, 「序」, 『북원』, 예문당, 1944, 3면.

5) 안수길, 「용정·신경시대」, 『안수길』,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2006, 608면.

6) 위의 글, 612면.

만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안수길이 생각한 조선 작가란 어떤 존재였는가, 혹은 재만 작가란 어떤 존재였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은 만주국이라는 왜곡된 공간에 자신을 던져 넣었던 작가의 윤리를 묻는 것이기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설 텍스트 자체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주국책에 협력하는 소설을 써냈을 뿐이라고 작가 안수길을 옹호하는 태도는, 그를 소설의 문면에만 의거하여 만주국책에 협력한 작가라고 단정하는 태도만큼이나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 글에서는 당대 안수길이 만주국에 마련된 문단에서 재만조선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기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특히 안수길에게 있어서, 만주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한편으로는 생존의 터전이자 기회의 땅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억압과 수탈이 따랐던 땅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족과 민족이 대면하는 자리에 마련되는 중간자적 자리에 놓인 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딜레마에 초점을 둘 것이다. 김윤식 교수는 안수길의 삶과 문학 세계 전반을 조망한 다음, ‘작가의 인격과 작품이 나란히 간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안수길은 ‘인생과 작가의 유형에 든다고 평한 바 있다.’⁷⁾ 이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앞서 김윤식 교수의 평가로부터 최소한의 시사점을 얻는다면,⁸⁾ 그것은 아마도 작가 안수길이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내는

7)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273면.

8) 안수길과 만주의 관계를 상징함에 있어서 김윤식 교수는, 장편 『성천강』의 배경인 함흥과 장편 『북간도』의 배경인 만주(간도)가 각각 제1의 고향과 제2의 고향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제2의 고향인 만주는 ‘보다 덜 훼손된 고향’으로 작가의식의 차원에서 애착을 보인 공간이었으며, 결국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제1의 고향인 함흥으로 귀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천강』의 의미는 물론 몸이 병이 들면 함흥으로 돌아오곤 했던 작가의 전기적 행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안수길과 만주라는 공간의 양자 구도를 함흥을 포함한 제3항으로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만주와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안수길과 만주라는 공간의 연결 관계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일단은 안수길의 문학이 자신의 공간적 체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참고하기로 한다.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될 것이고, 이로부터 안수길의 작품을 검토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간추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수길의 문학은 당대 만주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분리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는 점, 나아가 만일 안수길의 문학이 만주국책의 재현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안수길이 일부러 도피한다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혼종적 공간’으로서의 ‘간도’를 온몸으로 체험한 이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수길이 만주에서 발표한 소설 집인 『북원』과 해방 이후 월남하여 집필한 『북간도』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국가 간의 민족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주국 체제 하에서 작가 안수길이 놓여 있었던 존재론적 위치와 작가윤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얼되놈의 자리’와 작가의 윤리

안수길의 중편소설 「벼」에는 응봉리에서 길림으로 이주한 개척민들이 최초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전(논)을 일구고 터를 잡고, 이 소문을 접한 고향 응봉리의 주민들이 잇달아 국경을 넘어 간도에 당도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북간도』를 비롯하여 여러 소설에서 나오는 설정인데, 그 결과 간도에 세워진 마을은 땅이 바뀌었을 뿐 실상은 조선에 있던 낫익은 부락민들이 모여 사는 형국이 된다. 거친 환경을 이겨내면서 이들의 연대의식은 ‘조선인’이라는 이름 이외에 개척 촌락의 주민이라는 자격으로도 더욱 공고해지고, 간도에 자신들이 떠난 고향을 옮겨 놓아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생겨난다. 이러한 정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벼」의 주민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떠난 고향의 이름을 따 ‘응봉학교’라 부르는 대목일 것이다. 낫선 땅에 뿌리 내린 후세대에게 떠난 고향의 이름, 근원

9) 박진임, 「국경넘기와 이주의 시학」, 『한국현대문학연구』 11, 2002.

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붙여준 이름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처럼 만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한반도와 만주는 명쾌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떠나왔으며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혹은 불가능한 땅임에도 의식적인 연대의 끈이 존재하는 것이다. 작가 안수길이 아무리 만주의 역사를 그려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조선과의 연대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길의 작품이 전적으로 만주를 한반도와 균질한 공간으로 보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가 그려낸 만주 개척의 서사와 재만조선인의 역사는 분명 만주가 조선과 분리된 독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안수길의 작품에서 만주와 조선의 연대 관계가 대상화되는 방식을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주한 조선인의 입장에서 고향의 일측을 바라보는, 즉 만주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을 대상화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다. 다음 『북간도』의 일절은 한 예가 될 것이다.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인인 창윤은 조부의 고향인 함경도 종성부에 들어간다. 처음 보는 고향의 모습은 그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차츰 고향 사람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그에 따라 인성 또한 각박하다는 점에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조(父祖)가 일군 제2의 고향인 간도 비봉촌을 생각한다.

동복산 일측이나 청국 관헌한테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얼되놈 최삼봉, 노덕심 같은 사람들이 심어 놓은 것, 주민 사이의 반목 같은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비봉촌처럼 살기 좋고 인심이 후한 곳은 없다고 창윤이는 생각하게 됐다. (...) 창윤의 눈은 점점 고국의 땅, 부조의 고향의 깊게 감춰 있는 데를 파고들었다. ‘고국이구 고향 땅이구 벨 쉬 없어.’¹⁰⁾

이처럼 고향이란 끊을 수 없는 연민의 대상이되, 현재 만주에서의 삶의

10) 안수길, 『북간도』上, 188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존재한다.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했으
 되 그 결단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는가를 판단할 때 고향은 비교 대상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라는 점에서는 향수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거꾸로 고향의 조선인 일족의 입장에서 간도의 조선 이주민을
 바라보는, 즉 자신이 만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거점으로 만주를 대
 상화하는 방식도 발견된다. 안수길의 소설에서 이러한 시선은 곧 간도인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서술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한반도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간도’의 의의를 자리매김하는 대목 모두에 해당된다. 가령
 『북간도』에서 ‘광개토대왕비’의 발굴에서부터 그려낸, 조상의 땅(고토회복)의
 역사로서의 ‘사잇섬(간도)’으로의 진출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선에서 보았을
 때 간도는 대대로 지사의 땅이며 농민들이 일구어낸 새로운 개척지이다. 그
 리고 본토에서 독립운동의 길이 막히자 물려온 청년들과 지사들이 훈련을
 쌓고 때론 훗날을 도모하는 조선민족의 희망의 땅인 것이다. 이때 간도는
 조선의 일부로서 장차 조선의 미래가 준비되는 곳이다. 실제로 『북간도』의
 서술부는 개척촌을 만드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농민들의 죽음에 대
 한 헌사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죽어간 무명용사들에
 게 대한 예찬으로 바뀐다. 희생된 이들을 지배했던 시대적 조류와 그 속에
 서 운명처럼 죽어간 사람들의 역사는 『북간도』의 서사가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자 치열한 고증 속에 서술된 대목이다. 이 경우 한반도와 간도는 서
 로 분리되지 않으며, 제각기 이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간
 난(艱難)의 역사를 공유한 공간이다.

만주에서 조선을 대상화하는 방식, 이어서 조선에서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대상화 방식의 마지막 항은,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
 는 시선을 경유하여 만주를 만주 자체와 대면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금 복잡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시선
 을 다루는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만주라는 땅에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많은
 선입견과 기대가 존재한다. 가령 비옥한 토지에 대한 풍문이라든가, 낮은

이민족과의 대면에서 겪는 수난사, 망명 지사의 전설 등이 그 예이다. 앞서 두 단계의 대상화 방식은 재만조선인의 입장이나 혹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나온 일방적인 편견을 자체적으로 내포한다.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의제기를 하기 힘든 집단적 결정론에 포섭된 시선이다. 즉 서사의 방향은 이미 작품이 쓰이기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주가 조선을 대상화하는 방식에서는, 고향이 그림지만 지금의 현재 땅 역시 고향이라는 애환론이 도출된다. 이어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에서는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상들이 등장하고 만주의 역사적인 위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에서 기대하는 만주에 대한 환상을 의식하되 동시에 만주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시선이다. 만주라는 공간 안에서 재만조선인 안수길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에는, 당연히 몸은 만주라는 시공간에 속했으되 조선인이라는 의식과 재만조선인 집단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겹쳐진 지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곧 만주 체험의 영역이자, 단순히 조선을 축으로 삼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집했을 때 접근하기 힘든, 만주 공간 특유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자리이다.

만주의 실상을 드러내는 내부자의 시선이란 달리 말하자면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균열의 지점을 응시하는 시선이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수길이 특히 조선인 내부의 반-조선인 혹은 탈-조선인이라 지칭할 만한 인물 군상, 이른바 ‘얼되놈’이라 불리는¹¹⁾ 공동체 내부의 이질적 분자를 그려내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11) ‘얼되놈’이란 마치 청인인양 행세하면서 동족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쟁기려 드는 조선인을 경멸조로 이르는 용어이며, 그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추측컨대 두 가지 가설 정도가 가능할 듯하다. 하나는 인간됨이 여물지 못하다는 ‘얼되다’와 중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되놈’이 합쳐져 생성된 용어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숫자 ‘이(2)’를 뜻하는 중국어인 ‘얼[er]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되놈’이 결합하여 생성된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도 아니면서 중국인 행세를 하며 사실상 ‘2인자’ 혹은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후자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인 시대상과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얼되놈’이란, 만주개척기에 청관헌의 요구에 순종하고 그 대가로 지주가 된 조선인을 가리키는 ‘점산호(占山戶)’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상, ‘얼되놈’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신 대련대학의 최봉룡 선생님과 한경대학의 윤휘탁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만하다. 일차적으로 이들 ‘얼되놈’이란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서 동족 간의 정리를 외면하고 사리사욕을 좇는 이기적 군상의 전형이며, 그 과정에서 청인인양 행세하기를 서슴지 않으므로 작품 내에서는 악역이자 단죄 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들은 민족적 정체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주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재편된 민족 간의 위계질서에 재빨리 편승하여 중국인 아류로 행세하며 도리어 동족을 수탈하는 속물적 기회주의자 집단인 것이다. 만주를 개척자들이 일군 고난의 땅이자 독립을 준비하는 지사의 땅이라 신성화하고 싶어 하는 민족주의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이들 얼되놈 군상이란 내부에 생겨난 골칫거리들이며 드러내기 싫은 치부(恥部)이다. 즉 안수길의 소설은 당대 조선의 영토적 연장으로서의 만주라는 공간을 그려 낸 역사적 기술(記述)이기도 하지만, 분명 조선과 만주라는 두 공간의 경계에 발 딛고 선 작가의 시야에서 조망되는 냉철한 내부 응시의 기록이기도 한 것이다.

안수길의 소설이 주로 만주 개척 세대의 체험담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거니와, 이 개척 세대의 수난사에 생동감과 극적인 효과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얼되놈’의 군상이다. 안수길의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의 고증과 전달에 비해 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스토리의 형성에 는 취약한 편인데, 『북간도』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한복-이장손-이창윤-이정수의 4대(代)를 아울러 총 5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작중 인물을 해당 장소에 투입 시킨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¹²⁾ 반면 제1부에서 제3부까지 소설의 전반부에서, 이한복 영감의 손자 이창윤이 조부가 일군 비봉촌을 떠나 용정으로

12) 『북간도』의 특징은 실제 안수길이 활동한 시기였던 만주국 설립 이후의 시대를 묘사하는 지점에 이르면 서사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단속적 기록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한수영은 『북간도』가 ‘만주국 건국 이후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가장 잘 형상화할 수 있는 시간대의 만주체험을 고스란히 생략해버린 것’에서 ‘만주공간’에 대한 작가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생겨난 미묘한 길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한수영, 『만주 개척의 서사와 기억의 중층성』, 『북간도』 작품 해설, 글누림, 2013, 235면.

이사를 단행하는 대목까지는¹³⁾ 인물 간의 갈등 구도에서 촉발된 긴장감의 밀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한복 영감의 가계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최칠성 영감의 가계를 맞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변발혹복’을 요구하는 청인의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한 이한복 영감과 달리 최칠성 영감은 청인과 타협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최칠성의 아들 최삼봉은 ‘얼되놈’이 되어 악역을 담당한다. 『북간도』 이외에 창작집 『북원』에서 비교적 완결된 이야기의 구조를 획득한 단편들, 예컨대 단편 「원각촌」, 「토성」, 「새벽」 등은 선량한 주민과 ‘얼되놈’ 혹은 ‘협잡꾼’을 등장시켜 조선인 부락 내부에 존재하는 대립구도를 극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¹⁴⁾ 청국인 토호와 순경에게 아첨하며 그로부터 얻은 권세를 행사하는 조선인 ‘얼되놈’에 대해 주민들은 비웃거나 욕을 할 수는 있어도 반발할 수는 없다. 그들은 평화스러운 생활에 언제 재앙을 가져올지 모르는 존재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얼되놈’ 집단은 일단 조선인 집단을 해체하며 암약하는 악종(惡種)들이며, 한반도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만주의 조선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종자들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주라는 공간을 파악하는 안수길의 시선이 갖는 강점은 비단 이러한 ‘얼되놈’ 군상을 다만 악역으로, 동족·혈족에 대한 배반자로 몰아붙여 단죄하려 들지 않는 데에 있다. 특히 해방 이후에 발표된 『북간도』에서는, 해방 이전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던 ‘얼되놈’ 군상이 어떤 조건하에서 발생했는지 그 생성의 맥락을 짚어내고 있어 흥미롭다.

“미안하지마는 어찌겠소. 기왕사 그렇게 된 바에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싫다고 양탈하는 노덕심이나 함께 최삼봉이의 앞머리를 면도로 뽀뽀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동네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다. 비봉촌 주민의 청국 정부에 대한 사무적인 일을 정부 관공서와 싸워 가면서 잘 보아 주었다.

13) 대략 구한말에서 1909년 간도협약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해당한다.

14) 이에 대해 염상섭은 “엽기적인 사건”을 활용한다고 하여 대립구도의 극화가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최통스(통사)! 노통스!> 벌써 얼되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 자연히 청국측에서 대우를 받고 또 주민들에게 「통스, 통스」로 떠받들리우는 위치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권자! 이한복 영감이 예언한 대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작인의 위치에 놓이게 될 밖에 없었다. 주머니는 두툼해지고 교만심이 거기에 따랐다. 처음의 양심은 어디에 갔을까? 부끄러움은 어디에 갔을까? 15)

위의 인용은 최삼봉이 ‘흑복변발’을 하고 주민들을 대표하여 청인으로 입적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이민족의 복색을 하고 청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울면서 탄식했던 인물이 어느 순간인가 ‘얼되놈’으로 변모하기까지의 전후사정이, 이 장면에는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상의 장면을 통해 안수길의 전하려 했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얼되놈’이었던 인물은 없었다. ‘얼되놈’에 앞서 존재한 것은 청인과 조선인, 서로 다른 민족이 대면하는 지점에 마련된 ‘얼되놈의 자리’이다. 이민족 간의 대면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만주처럼 여러 이민족이 이권 관계로 얽혀 있었던 땅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이민족끼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십중팔구 권력 다툼의 장에 포섭되는 절차이다. 비봉촌 주민의 곤혹스러움은 이렇듯 ‘얼되놈의 자리’를 피하려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때 안수길이 포착한 ‘얼되놈’의 탄생 장면에는 해당 촌락의 주민들이 ‘얼되놈의 자리’를 지탱하는 조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얼되놈’을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방관자를 자처하며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누구도 ‘얼되놈’의 탄생이라는 사태에서 결백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침묵의 형태로 ‘얼되놈의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렇듯 이민족간의 대면 상황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얼되놈의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인물의 인성(人性)이 그 자리에 맞추어 변해간다. ‘얼되놈’으로의 전이에는 특별한 계기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15) 안수길, 『북간도』(上), 삼중당, 1967, 97면.

순간이 전이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핵심은 ‘얼되놈’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얼되놈의 자리’라는 조건에 있다.

요컨대 ‘얼되놈의 자리’는 비단 청인과 조선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 어디에든 마련될 수 있다. 식민지 일제 협력의 공간에도, 한반도와 중국의 변경인 만주에도, 그리고 이 만주에 세워진 만주국이라는 체제 안에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얼되놈의 자리’가 아니라 ‘얼왜놈의 자리’, ‘얼양놈의 자리’ 등 여러 형태의 변이가 가능한 것이다. 주지하듯 해방 이후 『북간도』를 펴내면서 안수길은 정작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해서 그리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¹⁶⁾ 그러나 ‘얼되놈’의 발생사를 되짚으며 안수길은 당대 재만조선인이 당면했던 현실적 난국을, 그 딜레마를 뚜렷하게 부조해낸다. 당초 재만조선인의 치부였던 ‘얼되놈’ 집단을 그려내는 데에서 재만조선인의 생존 조건으로서의 ‘얼되놈의 자리’를 조망하는 차원까지, 이와 같은 시야의 확대는 안수길의 소설이 만주 체험과 더불어 원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이제 안수길 소설의 방대한 역사적 기술이 향하는 지점은 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요컨대 ‘얼되놈의 자리’란 결국 개인의 윤리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얼되놈의 자리’가 본래 이민족 간의 의사소통과 권력 관계의 장에 마련된 자리이자, 그러므로 관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였던 까닭이다. 만주 공간에서 그 자리는 어디에든 열려 있었고, ‘얼되놈의 자리’를 향한 욕망은 특정한 사람만 갖는 자질이 아니었다. 이는 중일전쟁 이전까지 만주의 공간적 성격이 ‘일확천금의 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안수길의 단편 「토성」에서

16) 안수길 소설이 문학사적 의의와는 별도로 서사적 형상화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는 주로 『북간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관련 논문으로는 윤재근, 「안수길론」, 『현대문학』, 1977.9-10. ; 이주형, 「『북간도』와 북간도 민족사의 인식」, 『작가연구』 2, 1996.10 참고 특히 이주형은 『북간도』의 경우 작가가 ‘역사 강담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소설적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주의 건설 경기를 타고 한 몫을 잡아보겠다는 야심과 이편 밀매를 마다하지 않는 학수나, 장편 『북간도』에서 농사가 아닌 장사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꾸는 창덕의 일화 및 장현도 일가의 에피소드는 당대 용정의 변화함을 담고 있다. 중일전쟁 이전까지 만주 곳곳에는 꾸준한 도시화와 함께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졌다.¹⁷⁾ 조선 이주민 앞에 펼쳐진 만주는 단순히 비옥한 땅의 주인이 되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 이외에도, 대부분 변방의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이들에게 계급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굳이 땅을 일구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준 땅이었던 것이다.

훗날 안수길은 자신의 소설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라는 물음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¹⁸⁾ 이 질문은 이미 윤리적인 차원과 소설 쓰기를 결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진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만주국 산하 조선인 작가이자 『만선일보』의 기자였던 안수길에게 과연 그에게 올바른 삶을 위한 투쟁이란 어떤 형식이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분명 만주국 산하에서 창작된 『북원』이나 『북향보』는 국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저항의 포즈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앞서 살펴본 ‘얼되놈의 자리’라는 윤리적 시험대에 그 자신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말하자면, 그는 만주국이라는 체제가 열어주었던 입신과 명예의 가능성의 자리에 놓여 있다. 만주국이 노골적이며 배타적인 이권 쟁탈전의 전면화된 형태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오족 협화’를 표방하며 배타적인 장벽을 없애는 포즈를 취했다는 것, 이는 곧 기득권의 재분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이 과정에서 안수길은 그 자신이 신중하게 그 발생 과정에 대해 고찰했던 ‘얼되놈의 자리’,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시험 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

17) 만주 및 만주국의 도시화 및 자본주의화에 관해서는 한석성,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개정판), 117-123면), 유지원 외,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7) 참고.

18) 안수길, 「나의 처녀작 시절」,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239-240면.

다. 그 내적 갈등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자기옹시와 자기보존의 긴장 관계

만주국의 독특성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한반도에 비해 독립국을 표방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¹⁹⁾ 중국 땅을 점유하고도 중국의 왕조적 정통성을 전유하고, 이민족을 포함하여 ‘오족협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공간의 특징은 ‘이념 과잉’에 있다는 설명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단적으로 일본인들은 “패망 때까지 만주국 국적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므로 법률상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만주국민이란 정체성을 붙여넣으려 애썼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²⁰⁾ 일차적으로 이때 ‘국민’이라는 이념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통치자에 의해 주입되는 환영(illusion)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환영이 현실을 지배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환영을 현실의 무대에서 승인하는, 다시 말해 스스로 ‘국민되기’의 현장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념이란 일방적일 수 없고 통치권자와 피통치자가 같은 무대에서 현실적 환상(fantasy)을 용인하는 한 유지되는 것이기에 만주국이란 ‘이념적 공간’이며,²¹⁾ 나아가 이

19)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과 독립국을 표방했으니 사실적으로는 식민지 상태였던 만주의 체제 차이를 김재용은 ‘공식적 식민지 대 비공식적 식민지’라 요약하고, 이런 차이를 감안하여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저항은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협력한 것은 아닌’ ‘수동적 협력’의 상태를 변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47면.) 조선과 만주국의 통치 체제가 다르다는 사실은 당대 재만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가 되는데, 가령 만주국의 국책을 옹호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기대에 걸려 있느냐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동원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냐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상경의 견해는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야만적 저항과 ‘문명’적 협력』, 앞의 책, 60면.)

20) 한석정, 앞의 책, 159면.

21) 이러한 설명은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간간사랑, 2002)에서 시도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 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 자체이다.” 이데

도저한 이념적 억압으로 인해 의식적인 자기반성 내지 자기회회가 곧바로 생존 기반의 붕괴 내지 생명의 위기와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념적 폭력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이념적 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평범한 삶의 방식이란, 주어진 체제가 만들어낸 규범과 사고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단편 「원각촌」은 만주국 하에서 안수길은 물론 조선 이주민 전체가 놓여 있던 이념적 포획 상태와 그에 따른 평범한 삶의 방식을 가장 충실하게 그려낸 보고서이다. 조선인 마을인 원각촌에 돌연히 나타난 이상한 사내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이주민 집단을 지배하는 근본적 정서에 대해 통찰할 기회를 준다. 얼핏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이는 원각촌의 유일한 골칫거리는 얼퇴놈 한익상이란 인물이다. 만주국의 적(籍)을 두고 있으며 만주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한익상은 마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다.

주민들은 그를 벌리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역이였지만 그를 미우고는 하로도 안온히 살수없었고 그한테 속는줄안면서도 청하는돈푼을 내여주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 한통쓰 한통쓰하고 치마뜨는 수밖에없었으며 그가 갈껌하기전에 미리 닭마리나 음식같은것을 갖어다 받히고 그의 성미를 녹이는수단으로 겨우 미봉하여 왔었을 다름이었다.²²⁾

주민들은 얼퇴놈 한익상의 만행을 알고도 묵인한다.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알고도 속아주는 척 넘어가고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수길은 이 대목에서 만주의 산판을 전전한 끝에 원각촌에 불쑥 등장한 조선인 사내를 등장시킨다. 역쇠라 불리는 이 인물은 오로지 자신의 아내에게만 집착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성욕의 지배만을 받는 인물이다. 그가 정착하지 못하는 유일한 원인은 만주의 못사내들로부터 아내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이다. 얼퇴놈 한익상은 역쇠의 아내를 넘보다 역쇠의

올로지적인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참여자들의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다.”(48면)

22) 안수길, 「원각촌」, 『북원』, 43-44면.

손에 죽고, 억쇠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방랑길에 나선다. 이 소설은 만주의 농촌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정착민의 생존 방식을 억쇠라는 방랑자(노마드)와 선명히 대조해 놓았다. 땅을 지키려는 농민의 본능은, 현실적 생존의 터전인 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참고 견디라 명령한다. 이 때 그 명분을 노동의 신성함에 두든지 개척자의 의지에 두든지 그 본질은 맹목적 생존 의지에 있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집착하는 한, 원각촌의 주민은 아무도 한익상에게 저항할 수 없으며, ‘얼되놈의 자리’를 차지한 한익상이 만들어 놓은 주인과 노예의 무대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그 무대를 뒤엎는 것은 땅에 기반한 생산과 문명의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성욕이라는 야성적 본능만을 추종하는 억쇠이다. 땅은 삶의 토대이자 삶의 족쇄로서, 자신의 생존을 내걸지 않는 한 ‘얼되놈의 자리’를 구심점으로 한 공고한 질서 체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주민들 역시 세속적인 욕망에 봉사하는 ‘얼되놈’의 자질을 어느 정도 분유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소설 인생에 있어 일관된 질문이었다는 안수길의 고백은, 이렇듯 생존을 위해서라면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편이 편했을 자기반성 혹은 자기응시를 환기시키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해방 이전 만주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안수길은 도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혹은 못한 채) ‘얼되놈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 매 순간이 자기윤리를 시험하는 시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만주국과 같은 이념적 폭력의 공간에서 작가로서 창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 시험대에 놓이는 것이며, 그러므로 창작 행위는 일종의 정치적인 발언일 수가 있다. 소설집 『복원』에 수록된 「사호실」(1940)은 작가 안수길이 당면했던 정치적 곤혹스러움과 그에 따른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속설은 원산 석왕사 부근 여관에 폐병으로 정양하러 온 사호실 손님 마준영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으로, 안수길의 소설로는 보기 드물게 인물 내면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만주를 직접적인 배

경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단편은, 외적 조건에 따라 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느냐를 추적한 작품으로, 윤리적 시험대에 놓인 개인을 대상화한다는 작가의 창작 경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목해야 할 작품이 된다. 22세 시골금융조합의 서기로 일하다가 설봉여관에 투숙한 ‘마’는 자신이 신경쇠약 환자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궤양으로 정양을 온 동료 투숙객이자 그와 친근한 사이인 ‘박’을 비롯하여 투숙객들이 폐병 환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폐병 환자임을 숨기기 위해 마가 기울이는 노력은 눈물겹다. 그는 자신이 폐병 환자임을 숨기기 위해 여관을 찾아들어온 다른 폐병 환자를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보란 듯이 쫓아내기도 한다. 차마 힘에 부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박과 무리한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 보인다. 박의 권유를 좇아 폐병에 해로운 뜰을 뜨러 의원을 찾아다닌다. 결국 한동안 잠잠하던 객혈이 터져 나온다. 이 블랙 코미디의 정수는 이런 비굴한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씹고 매번 반성하면서도 다음날이면 결국 또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마의 용렬함에 있다.

“뛰어가서 그의 빈약한역개를 덤석쥐고 여보 이거 웬일이요-하고 함께 울고 싶은 충동이 마의 가슴속에서 용소슴쳤다. 다음순간 마의 가슴에는 그가 아까 주인에게 한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치바쳤다. 동시에 폐병환자는 이 세상에서 용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자기도 그런 환자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즉석에서 쪼겨난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 될것이 아 니냐-그는 큰절벽에 다다른듯 앞이 캄캄하였다.”²³⁾

마는 자신이 동일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자신과 같은 부류를 배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동적으로 굴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 박을 두려워한다. 박의 믿음을 깨지 않으며 경미한 신경쇠약 환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그로써 여관 내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그는 결국 폐병이 악화되어 가는

23) 안수길, 『사호실』, 『북원』, 174면.

지경에 이른다. 더불어 자기 환멸도 깊어간다. 1933년 안수길은 건강이 악화되어 실제로 석왕사에 정양했던 적이 있다. 「사호실」에는 이 시기 안수길이 석왕사 여관에서 정양했던 경험과 1940년 무렵 자신의 내면이 교차되어 있을 것이다. 박의 시선이 마를 움죽 달짝 못하게 움아맬 수 있었던 것은, 박의 시선이 마에게 자신의 거짓말과 죄의식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박의 시선은 박의 것이되 동시에 마가 자신을 투영한 시선이다. 이러한 자기 응시로 인해 마는 집단 내에서 자신이 놓여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자신의 용렬함을 확인한다.

표면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 이외에 텍스트는 이른바 텍스트의 무의식이라 부를 만한, 작가 스스로 논리적 설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내적 균열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간도’를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속에서의 위기의식과 자기 환멸이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사호실」이 주목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적극적 저항을 펼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사호실」의 개인적 갈등이, 그 문맥을 바꾸어 민족의 서사로 편입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된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이었던가? 경관의 감시 밑에 대하는 얼굴이었으나, 무척 반가웠다. (‘살아 있었구나’) 김경문이는 더욱 그런 모양이었다. 어린 정수를 무척 사랑했었기 때문일 게다. 반가움이 눈과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런 김경문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배반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쥐어뜯었기 때문이었다.²⁴⁾

소설 『북간도』 중에서 작가 안수길의 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인 한복영감의 증손자 이정수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3.1 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간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가담했으며 흥범도 부대의 독립군으로도 활동하던 이정수는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항쟁의 기개가 꺾이자 더 이상 ‘불령선인’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 없어 자수한다. 조사과정에

24) 안수길, 『북간도』下, 269면.

서 그는 왕년의 독립군 부대의 동지였던 김경문과 대질심문을 받고 있다. 반가워하는 김경문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감히 그 눈빛을 받아내지 못한다. 나무라거나 힐난하는 눈빛이 아님에도 상대의 시선을 도무지 마주 대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눈빛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응시의 시선 때문이다. 정수는 실제로 일본에게 협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일본의 체제하에 순응했다는 것을 의식한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 있다.

자기응시는 양심과 윤리의식을 동요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이 ‘얼되놈의 자리’가 완전한 권력자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는 동력이며, 다만 고통과 불안이 따를 뿐인 보류의 형태로 존속케 하는 동력이다. ‘얼되놈의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념적 폭력의 공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수반될 온갖 부정적 가능성으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의식을 갖는 것이다. 안수길의 소설의 궁극적 질문이 자기응시를 통해 자기 환멸과 죄의식을 느끼며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피는 것은 곧 재만조선인 작가로서의 윤리의식을 살피는 작업이라는 의의가 있다.

4. 결론 - 이념적 폭력의 공간과 글쓰기

안수길의 소설은 소리 내어 저항을 말하지 않기에, 그 텍스트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그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의 소설에 중요한 갈등 장치로 등장하곤 하는 ‘얼되놈’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다. 이로부터 당대 이념적 폭력의 공간 속에 놓인 작가의 위치를 이른바 ‘얼되놈의 자리’에서 글쓰기를 하는 형국이라 보았다. 이것은 당대 만주라는 공간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창작 활동을 하며 머물렀다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도출

된다. 이때 ‘얼되놈의 자리’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얼되놈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으로서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를 배반하면서까지 당대 제도가 열어놓은 세속적 욕망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포섭되는 사태를 가리킨다고 보고, ‘얼되놈의 자리’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소멸의 위기 앞에서 자기응시를 통해 현재 놓인 위치를 자각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안수길의 소설에서는 ‘얼되놈의 자리’가 현실화되어 현실적 권력을 행사하는 실체로 현현되는 것을 의식적 수준에서 저지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한다. 생산자적 질서를 야만적인 질서로 붕괴시켜 버리는 인물이 등장하는 「원각춘」, 집단 내 주류로부터 배척 당할까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호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 곧바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북간도』 등은 그 사례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재만조선인 작가로서, 만주국 치하에서 작가 활동을 해야만 했던 안수길이 매순간 일상에서 직면해야 했던 윤리적 고민의 성격을 해명하고, 만주국이라는 공간에서 수행된 문학 행위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일차문헌

- 안수길, 1944, 『북원』, 예문당.
_____, 1967, 『북간도』 상·하, 삼중당.
_____, 1977,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_____, 2006, 『안수길』,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_____, 2013, 『북간도』 1~3, 글누림.

이차문헌

-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김재용, 2004,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김종욱, 2004,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 안수길의 『북간도』 연구」, 『국제어문』 30.
박선영, 2008, 「간도 문제의 시대적 변화상, 17~21세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박진임, 2002, 「국경넘기와 이주의 시학」, 『한국현대문학연구』 11.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유지원, 2007, 외,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윤재근, 1977, 「안수길론」, 『현대문학』, 9-10.
이상경, 1996, 10, 「간도 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이주형, 1996, 10, 「『북간도』와 북간도 민족사의 인식」, 『작가연구』 2.
채 훈, 1990, 『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천춘화, 2004, 「안수길의 만주 체험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개정판), 동아대학교출판부.
한수영, 2013, 「만주 개척의 서사와 기억의 중층성」, 『북간도』 작품 해설, 글누림.
슬라보예 지젝, 2002,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인간사랑.

■ 中文概要 ■

在满洲(国)作家安寿吉和‘얼되놈’的位置

－ 思想压迫的夹缝中生成的文字和作家伦理－

郑珠娥

这篇论文是满洲国时代,关于在满朝鲜人,安寿吉以作家的身份活动的内容。安寿吉在满鲜日报做记者的同时写了小说。满洲国是朝鲜人,日本人,中国人混住的地方。在那个地方,安寿吉是担任交流的社会性角色。众所周知,他的小说涵盖了宣传满洲国策的内容。这事实上,成为了对安寿吉的生平和文学作品批判的证据。比起从民族主义的角度,产生的批判,这篇论文的焦点更投放在那个时代,生活在满洲的安寿吉不得不担当的社会性角色,和对他内心矛盾的理解。通过这样的理解,从而,对安寿吉小说中以作家身份出现的伦理意识进行了说明。这篇论文的关键词是‘얼되놈(汉奸)’和‘얼되놈의 자리’(汉奸的位置)。
‘얼되놈’是满洲开拓时期,背叛同胞为了满足自己的利益讨好中国人的朝鲜人。
‘얼되놈’是朝鲜的汉奸的意思的词语。但是在这篇论文中更重要的关键词是‘얼되놈的位置’。脱离民族主义的即物性观点来看的活,‘얼되놈’是民族和民族接触时的中间性存在。民族间接触权力关系的附有。这个时期,根据情况某些人‘얼되놈的位置’必须要在。在满洲国内,作家安寿吉协助满洲军。就是说和,‘얼되놈的位置’上的某些人是一样的。安寿吉小说的主人公们在饱受支配者虐待的煎熬中,不能正面抵抗,为了自己的生存,不断的忍受侮蔑。所以这篇论文对于在安寿吉小说登场的人物们,和在‘얼되놈的位置’有的人物,不逃避现实,不断地唤起自己的窘迫感

和耻辱感,和自己会不会堕落都不知道的危机感的表现,给予高度的评价。

关键词：安寿吉, 在满朝鲜人文学, 满洲国, 满洲, 間島, 『北原』, 『北間島』, 열되놈(汉奸), 열되놈的位置(汉奸的位置)